

쌍용컴퓨터

3本부 체제로



朴炳哲 사장

쌍용컴퓨터(대표 朴炳哲)는 올해를 확고한 사업기반 구축의 해로 정하고 새해들어 회사기구 및 조직을 전면 개편하였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조직을 연구의 목적별로 5개 기술연구 그룹으로 나눈 것.

또한 사업본부제 구축을 통한 본부장 직속의 마케팅 기능의 보강과 집중적 고객관리에 주안점을 두어 사업활동 을 펴 나가도록 한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한편, 정보통신부와 자동화 시스템부가 신설되고 대구 사무소에 이어 부산사무소가 신설된다.

이로써 쌍용컴퓨터는 3본부(기획관리본부·경영정보 시스템본부·자동화 시스템본부), 1연구소, 1실(기획관리실) 체제로 개편됐다.

효성히다찌
데이터시스템

그룹 VAN구축



楊大源 사장

효성히다찌데이터시스템(대표 楊大源)이 그룹VAN을 구축한다.

한편, 이 회사는 각 계열사에서 사용하는 IBM 기종 간의 상호연결에 이어 IBM과 히다찌 기종간을 연결할 계획이다.

同社는 각 계열사의 컴퓨터시스템을 하나의 네트워크 으로 엮어, 경영합리화를 꾀하고 모든 경영정보를 신속 정 확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同社는 최근 NAS의 AS/8063을 도입하고 기존의 AS/6630과 함께 OS를 MVS로 변경하였다.

삼성반도체
통신

LAN 보급 활기



姜晋求 사장

삼성반도체통신(대표 姜晋求)의 LAN 시스템 수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삼성반도체통신은 지난 해 11월 24일 부산 동아대학교에 캠퍼스 LAN 시스템을 설치한데 이어 최근 서울 잠실 지역에 세워지는 롯데월드내에 응용光 LAN 시스템을,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대전 연구원에 통합 LAN 시스템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회사는 85년 LAN 사업 시작이래 지금까지 국내 10 개 기관에 대규모 LAN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 회사는 올해에도 포항제철, 한국과학기술원, 에너지 연구소등에 LAN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에스·티·엠



金永泰 사장

창사 1주년 기념

올해로 창사 1돐을 맞은 에스·티·엠(대표 金永泰)이 지난 1월 5일 창사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삼성데이터
시스템

SECOM III 개발



全相昊 사장

삼성데이터시스템은(대표 全相昊)은 다이얼링 모뎀을 콘트롤 할 수 있는 모뎀콘트롤 SECOM-III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SECOM-III는 다이얼링 모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소프트웨어로 메뉴의 선택과 풍부한 HELP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통신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관리하는 디렉터리 시스템을 제공, 다이얼링 모뎀의 상세한 지식 없이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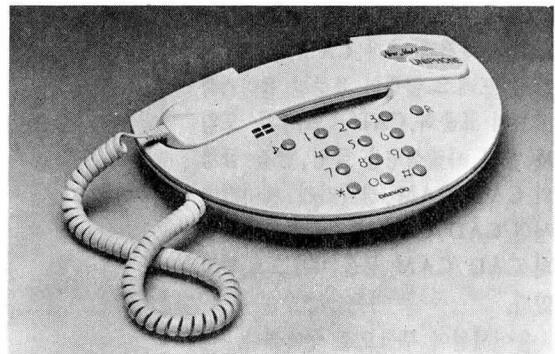
이외에도 화일트랜스퍼, VT200터미널에뮬레이터, 도스 상의 기능을 이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

同社는 SECOM-III을 올해 해외시장에 수출할 계획이다

에 띠를 둘러 기존의 자사 전화기들과 디자인상의 통일성을 갖추고자 했다.

램프·대기 음악·재ダイ얼 기능을 구비하고 있으며 적색·핑크색 등 3종류로 출하되고 있다. 소비자 권장가격은 4만 3천원.

한편, 대우통신은 지난 해 자사 전화기의 제품 이미지 통일을 위해 패밀리 브랜드를 '유니폰'으로 정했다.



대우통신은 또 별도의 주장치없이 8명까지 동시사용이 가능한 다기능 키폰을 개발했다.

캐나다 DBA사와 기술제휴로 대우통신이 개발한 「スマート폰-208시스템」은 국선 2회선과 내선 8회선을 전화기에 내장, 주장치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디스플레이, 동시통화, 스피커폰, 원터치 다이얼기능등 30여개의 기능 내장과 설치가 편리한 것이 이 제품의 특징.

대우통신은 이 제품외에 독자기술로 개발한 DW-616을 시판, 키폰제품의 다양화와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통신

새 모델 전화기 시판



朴成圭 사장

대우통신(대표 朴成圭)은 새해 들어 새 모델의 전화기 유니폰 DU 5010(사진)의 시판을 시작했다.

새로 선보인 DU-5010은 슬림형의 반원형으로 전화기의 몸체와 수화기가 평면을 이루는 독특한 스타일로 되어 있다.

전체를 곡선으로 처리, 여성적 우아함을 살렸으며 몸체

제철
엔지니어링

FASA 이사장 선임



張世勳 사장

제철엔지니어링의 장세훈 사장이 최근 한국공장자동화 시스템연구조합(FASA)의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